
모 두 발 언

‘23.9.19(화) 10: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제1기) '18.7 ~ '20.7월 / (제2기) '20.11월 ~ '22.11월 / (제3기) '23.9. ~ '25.9월

II. 그간 경쟁도평가의 성과 및 한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18년 도입 이후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1기 평가) 보험·부동산신탁('18.9월), 은행('18.11월), 증권('19.4월), 저축은행('19.7월)
(2기 평가) 보험('21.2월), 신용평가('21.8월), 은행·신용카드·신용정보('22.11월)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업권의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에 따라
대형 시중은행, 종합보험사 중심의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과 온라인 보험사 등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었고,

* ('18.11, 은행업 평가) 신규진입 제안 → ('21.6) 토스뱅크 신규인가
('18.9, 보험업 평가) 상품채널 특화손보사 진입 제안 → ('22.4) 카카오손보 신규인가

예적금 비교·추천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 (21.2, 보험업 평가) 플랫폼 기반 보험 중개 서비스의 순기능에 대해 분석
→ (23.6)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23.8)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그러나 단순히 총자산 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동일 업권 내 집중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경쟁도 평가 방식으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로
소비자의 금융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흐름 속
개별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금융 접근성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실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쟁 양상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Ⅲ.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그간 ①특정 업권의 ②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 회사 수,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 등

- ①증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 ②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 ③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우선 '24년에는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증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 볼 예정입니다.

제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과 증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같은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IV. 마무리 발언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만큼,

기존 평가방식에 비해 위원님들의 혜안이
더욱 아낌없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